

엄마가 들려주는 클래식 이야기

무지크바움·광주대 음악학과 '클래식 교실'

피아니스트 김정아 교수 길라잡이
작곡가 삶 듣고 라이브 연주 감상
광주·나주서 모두 6차례 공연
바흐 주제로 16일·31일 무대



악성 베토벤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 '카칭 베토벤'의 한 장면.

어렵게 느껴지는 클래식 음악을 쉽게 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유명 작곡가의 삶과 작품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직접 라이브 연주도 감상할 수 있는 기회로 무료로 진행된다.

나주시의 후원을 받아 '자녀와 함께하는 클래식 아카데미'를 진행중인 사)문화공동체 무지크바움과 광주대학교 음악학과는 올해 새로운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엄마가 들려주는 클래식 이야기'를 시작한다. 누구나 한번쯤 들어본 유명 작곡가 이야기를 주제로 부모와 아이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길라잡이로 나서는 이는 피아니스트 김정아(광주대 교수)씨다. 김씨는 해설과 피아노 연주를 맡아 관객들을 클래식의 세계로 이끈다. 공연은 나주(예가체프 2층 안성현 홀)에서 먼저 진행된 후 같은 프로그램으로 광주(광주대 호심관 3층 소강당)에서 열린다. 바흐, 고전, 낭만 시대의 대표 작곡가를 만나는 이번 기획의 첫 행사는 오는 16일(오후 7시30분) 안



김정아 교수

성현홀에서 열린다. 주제는 '해피버스테이 바흐(음악의 아버지 바흐의 333번째 생일 파티)'로 바흐의 명곡과 함께 같은 해에 태어난 헨델의 이야기와 음악을 만나는 시간이다. 광주 공연은 31일(오후 3시)이다. 레퍼토리는 '인벤션 1번 C장조, BWV772', '토카타와 푸가 d단조', 'G선상의 아리아', '골드베르크 변주곡' 등으로 바이올리니스트 김수연씨가 함께 출연한다.

4월 6일과 14일에는 바로크 음악을 만나는 시간으로 주제는 '천재와 악성의 만남(영화로 만나는 모차르트와 베토벤)'이다.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은 영화 '아마데우스', '카칭 베토벤', '별들의 연인'의 주요 장면과 함께 두 작

곡가의 숨은 이야기와 음악을 감상한다. 모차르트의 '작은별 변주곡', '타기 행진곡', 오페라 '마술피리' 중 '밤의 여왕 아리아'와 '파파게노 파파게나'를 만날 수 있다. 또 베토벤 곡으로는 '엘리제를 위하여', '운명 1악장', 피아노 소나타 '월광 1악장', '비창 2악장' 등을 연주한다.

4월 20일과 28일 열리는 '낭만'은 '건반 위의 거인 쇼팽과 리스트'를 주제로 열린다. 피아노의 시인'으로 불리는 쇼팽과 당대의 스타 피아니스트 리스트의 사랑과 음악 이야기를 만날 수 있다.

레퍼토리는 쇼팽의 '빗방울전주곡'과 '녹턴', 리스트의 '헝가리무곡'과 '라 캄파넬라' 등이다.

한편 '자녀와 함께하는 클래식 아카데미'는 유명 클래식 연주자를 초청해 진행하는 특별한 음악회도 준비했다. 5월 4일에는 임재홍 바이올린 독주회가 열리며 6월 16일에는 피아니스트 안수정 독주회가 클래식 음악 팬들을 기다리고 있다. 문의 010-6331-6834. /전문기자 eie621@kwangju.co.kr

광주문화재단 '미디어 388' 상반기 공모 선정작

박성준·박형철 '르 : 몽타쥬' 전

광주문화재단 '미디어388'에서 상반기 공모 선정작 'RE : MONTAGE (르 : 몽타쥬)' 전을 15일부터 오는 4월 15일까지 개최한다.

'미디어388'은 예술과 미디어의 협업이 이뤄지는 미디어아트 창의공간으로, 이번 전시에서는 공모를 통해 선정된 박성준, 박형철 작가의 'RE : MONTAGE'를 선보인다.

이번 작품들은 일련의 서사적 요소와 관객과 소통하는 쌍방향적 요소가 혼재된 설치작품이다. 영화 같은 이야기를 상영관이 아닌 실제의 공간에서 재현함으로써 관객들은 생동감 있는 체험의 기회를 갖는다.

전시 대표 작품인 'YOUR FLAME'은 관람자의 위치나 움직임에 따라 조명과 사운드가 반응하는 인터랙티브 설치 작품이다. 데이터베이스화된 이미지와 사운드(불꽃놀이, 전쟁폭격)를 통해 관람자가 직접 하나의 서사를 만들어 경험할 수 있다. 같은 대상을 보고도 서로 상반된 시선을 갖는 인간의 이데올로기적 갈등에 근원적 질문을 던진다.



'YOUR FLAME'

박성준 작가는 스위스 제네바고등미술학교와 미디어 디자인을 수학하고 영화적 내러티브를 기반으로 하는 작품 활동을 하고 있다.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조소과를 졸업한 박형철 작가는 개념적인 설치와 공간 작업을 토대로 다양한 방식의 공동작업을 추구하고 있다. 062-670-7492. /박성천기자 skypark@

민은주 한지 조형전 '칼-눈물의 통섭'

강진아트홀

25일까지



▶'추억'

한지 조형작가 민은주씨의 첫 작업은 다지로 만든 닥종이 인형이었다. 이후 나무 백골에 한지를 입혀 옷칠을 한 가구 제작으로 이어졌고 전통적이면서 현대적 해석을 입힌 등(燈)을 만드는 데 몰두했다. 최근에는 기와와 세월의 흐름이 그대로 묻어나는 고재(古材)에 다양한 한국적 문양을 조각하는 데 활동의 무게 중심을 두고 있다.

한 자리에 머물지 않고 부지런히 움직이며 늘 새로운 도전에 나섰던 그녀는 작품을 제작하기 시작 한 지 20년만인 지난 2014년에야 첫 개인전을 가졌고 이후 일본 후쿠오카에서도 전시회를 갖는 등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강진아트홀 초청 민은주 한지 조형전이 이 오는 25일까지 '칼-눈물의 통섭'을 주제로 열린다. 이번 전시에서 민 작가는 2008년 작부터 근작까지 작업 활동의 변화 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작품을

선보인다. 그녀는 서너 장의 한지를 풀칠하고 다시 붙여내는 중첩을 시작으로 건조가 끝나면 가장 한국적인 문양 조각에 들어가는 작업을 반복하며 작품을 완성해낸다.

옷칠문갑책장, 이층책장, 궤 등 옛 가구들에 한지를 입힌 작품을 비롯해 기와에 한지와 금을 입힌 작품 등 작가의 세심한 세공이 돋보이는 작품들이 눈길을 끌며 또 화려한 색감이 돋보이는 '피고 또 지고', 고향의 향수를 느낄 수 있는 '추억' 등 고재 위에 작업한 작품은 절묘한 색감과 고재 본연의 느낌이 어우러져 색다른 느낌을 준다.

민 작가는 전남도미술대전, 광주시미술대전에서 대상을 받았으며 대한민국미술대전 심사위원을 역임했다. 문의 061-430-3972.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비엔날레 19일 이정록 사진작가 작업실 탐방

(재)광주비엔날레가 지역 밀착형 정기 프로그램 '월례회' 일환인 GB작가 스튜디오 탐방 여덟 번째로 이정록(사진) 사진작가의 작업실을 오는 19일 오후 2시 방문한다.

이 작가는 10여 년 간 '생명나무' 시리즈를 통해 자연의 생명력과 숭고함을 영글에 담아오면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다.

2015년부터 개인전을 통해 선보이고 있는 최근작 '나비'는 찰나의 빛인 순간광을 활용해 긍정적 에너지를 담아낸다.



광주대학교 산업디자인학과와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사진디자인전공을 졸업한 이 작가는 2002년 로체스터공과대학 영상예술대학원 순수사진전공을 졸업했다.

신세계미술제대상(2006), 수평사진문화상(2015) 등을 받았다. 문의 062-608-4233.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아름다운 유·스퀘어 사진 공모전...내달 6일까지 접수

유·스퀘어 문화관이 '제 11회 아름다운 유·스퀘어 사진 공모전' 사진을 접수한다.

핸드폰 사진으로도 참여가 가능한 이번 공모전의 주제는 '내 마음속에 저장'이다. 생각할수록 힘이 되는 소중한 사람이나,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파스해지는 순간 등 마음속에 간직된 소중한 이야기를 하고 싶다면 나이 제한 없이 응모할 수 있다.

최우수 1점, 우수 2점, 장려 3점, 입선 20점 총 26점을 선정하며 백화점 상품권, CGV영화 관람

권, 양민도 바이올린 독주회 '니콜로 파가니니 바이올린 독주'를 위한 24개의 카프리스' 초대권 등이 주어진다. 마감은 오는 4월 6일이며 입상작들은 2층 유·테라스 야외갤러리에 전시된다.

개인당 5점까지 응모 가능하며, 디지털 이미지(JPG, JPEG)형식의 파일만 제출할 수 있다. 유·스퀘어 문화관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담당자 메일(u_square12@naver.com)로 보내면 된다. 문의 062-360-8431.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쳐보세요”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중로 5가역 1층 02) 765-9940

자연의 소리... 국제보청기

내 집같은 편안함! 고가의 여행대 휴식을 한 차분 높은 수준으로 업그레이드

건강한 우리 음식 한정식 30년 전통의 한정식, 당일 주중 점심 특선 오전 정식

알찬행사를 위한 연회장 세마를 위한 명상 사당이 갖춰진 등-수교외 연회장

정겨운 만남은 품격있는 **금수장호텔 아리랑하우스**

www.geumsoojang.com 예약문의 (062) 525-2111 계림동 흥플러스 건너편

광주맛집 since 1981 37년 고과과 함께 지켜온 1등맛집 연속 선정 광주의 대표맛집

광주금수장호텔 GEUMSOOJIANG HOTEL